

함께하는 의정, 살기좋은 단양!

통권 제21호

2008. 1.

의정활동 소식



단양군의의회

望 鄉

노 천 명

언제든 가리라.
마지막엔 돌아가리라.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아이들이 하늘타리 따는 길머리론
학림사 가는 달구지가 조율며 지나가고

등잔 심지를 돌우며 돌우며
딸에게 편지 쓰는 어머니도 있었다.

둥굴레 산에 올라 무릇을 캐고
활나물 장구채 범부채를 뜯던 소녀들은
말끝마다 째 소리를 찾고

개암쌀을 까며 소년들은
금방망이 놓고 간 도깨비 애길 즐겼다.

목사가 없는 교회당
회당지기 전도사가 강도상을 치며 설교하던
촌 그 마을이 문득 그리워
아라비아서 온 반마(斑馬)처럼
향수에 잠기는 날이 있다.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 가 살다 죽으리
모밀꽃이 하이얏게 피는 촌
조밥과 수수엿이 맛있는 고을
나뭇짐에 함박꽃을 꺾어오던 총각들
서울 구경이 소원이더니
차를 타보지 못한 채 마을을 지키겠네.

꿈이면 보는 낮익은 동리
우거진 덩불에서
짚레운을 꺾다 나면 꿈이었다.



함께하는 의정, 살기좋은 단양

의정활동 소식

CONTENTS



- 4 신년사
- 5 2007년 의정활동 내용
- 7 2008년 의정활동 계획
- 11 2007년 특별위원회 활동
- 13 2007년 주요안건 처리현황
- 14 군정질문 · 답변
- 17 의원논단
- 19 우리고장 문화 탐방
- 20 사람들을 찾아서...
- 21 의정모니터에게 듣는다
- 23 군민 참여마당
- 25 의정활동 현장스케치
- 30 2008년도 의회운영 계획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대망의 戊子年(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과 출향 인사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우리 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만, 올해는 새정부 출범 그리고 4월 총선, 경제적으로는 고유가, 달러악세, 금융시장의 불안 등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기대도 크지만 어려움 또한 많은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우리는 21세기, 변화에 순응하고, 도전하고, 준비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군민 모두가 위기를 변화와 도전의 기회로 생각하고,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면 능히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단양군의회는 5대 전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상구현을 위한 새해 의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상담제 운영”, “민원모니터제”, “민의를 듣는다” 등의 시책을 더욱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매일 의원들이 지역구를 순회하는 순회민원제 신설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자치능력 배양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양해지는 지방자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선진지방 자치제도 및 의회운영에 대한 연찬, 전문기관 위탁연수 및 자체세미나 개최 분기1회 ‘조례연구발표회’ 등을 통하여 연구하고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내 고장 물품 팔아주기, 지역상가 이용하기, 중소기업창업지원 알선이나 재래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설보완, 리브투어 및 계절별 이벤트행사 등 재래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소규모영세업소, 농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집행부와 상호 협조 및 조정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고루 살피겠습니다.

경로당 웰빙사업,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지원사업 등 생활복지 시스템을 점검함은 물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감시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각종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복지혜택이 군민 전체에게 고루 배분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우리는 무자년 새해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난 1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항상 군민의 편에서 군민을 위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우리군 의회가 4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년 1월 일

단양군 의회의장 엄재창

- 군민을 위한 생활의정 활발히 펼친 한해 -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생활의정 중점추진..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5대 단양군의회는 임재창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 『함께하는 의정, 살기 좋은 단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의정방침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위해 연구하는 의회』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로 정하여 젊고 활기 넘치며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 대의 기관으로서 시대적 과제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소기의 의정 성과를 알차게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7년도에는 제165회 임시회부터 제171회 정례회까지 88일간의 의회 회기운동을 통하여 임시회 5회 정례회 2회 등 총 7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밖에 현장방문과 민원상담, 자체의원 연수, 의회비교 시찰을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금년도 의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모두 159건으로, 이중 조례안이 58건으로 약 36%를 차지하였고, 의원발의 안건은 15건으로 나타났다. 민원상담제를 통하여 47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난 40여년간 시멘트 공장 광산개발로 인한 자연훼손과 먼지 등의 공해로 시달려 온 주민들의 건강 피해 및 주변 농경지 토양오염으로 인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6개 시·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보호에 앞장서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지역과 기업이 공생하는 가운데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중금속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환경부에서 시멘트에 대한 유해



새마을협의회와 간담회

성을 인정하여 11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멘트 소성로 대책관련 환경부 차관과의 간담회시 내년 2월 말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현안 사안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왔다.

의원발의로 『노인장수 수당 지급조례』 제정 시행으로 2007년도에 600여명에 대하여 매월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하여도 의원발의로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또는 저소득층 생계 안정은 물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서 역할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민의를 듣는다』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군·의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역동적인 생활의정 활동을 펼쳤다.

그밖에 의원이 상주하는 요일별 『민원 상담제』 및 『의정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47건에 대한 사소한 민원

대의기관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한 정부시책에 대하여 결의문 등을 채택 주민의 소리를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쳐..

해결로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책에 반영하였으며, 도내 최초로 해외연수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한 단계 발전된 의정활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제대로 성숙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역현안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부 시책 등에 대하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지역분류제도화 시안과 관련한 건의문』『시멘트공장 소성로 폐기물사용에 따른 개선대책 촉구 건의문』등 총 4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군민의 생존권을 위한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하는데 앞장서 노력하였다.

제5대 단양군의회의는 군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고, 국내·외 연수로 견문을 넓히는 한편,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양수자의원 건의문 낭독

해결하는 등 “함께하는 의정, 살기좋은 단양” 건설에 노력하여 왔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도약을 향한 기반을 충실히 다진 한해였다.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출발한 제5대 단양군의회의는 2008년에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의정 활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항상 연구하고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의회·민본의회·생활의회 구현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며, 살기좋은 일류도시로서 행복한 단양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는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추진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 톨스토이 -

의정활동

군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열린의정 펼칠 터..



염재창 의장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군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달라진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매일 의원 1명이 해당 지역구를 순회하는 '순회민원제'를 실시하고, 분기 1회 '조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노력하는 의회상 구현은 물론, 작년에 이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속에 무사히 의정활동을 마감할 수 있게 되는데 대하여 먼저

듣는 '민의를 듣는다'를 전 읍·면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각종 '간담회 개최'와 '의정 모니터제'를 활성화하여 열린 의정으로 군민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의 혜택이 4만 군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소규모 영세업소 및 농민, 저소득층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지원시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인인 군민 여러분과 의회의원 그리고 600여 공직자들이 함께 우리단양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인으로써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함께 만드는 행복한 단양"이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달러약세·고유가 등 희망과 어려움이 상존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희망과 용기 잃지 마시고 의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중점을..



오영탁 부의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난해의 의정활동에 다소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따뜻한 격려, 배려에 큰 대과(大過)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군민 여러분의 덕분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화와 도약, 선택과 희망의 새시대 새희망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해 보다도 큰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군민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도 항상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 쌓은 의정경험을 토대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성숙된 의정활동 모습과 낮은 자세로 군민 여러분께 한발 짝 더 가까이에서 다양한 민의를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기능 중 조례제정 및 개정을 통한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두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다양한 교육여건 조성,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쥐의 부지런함처럼 군민여러분을 찾아뵙 더..



장영갑 의원

무자년 새해의 힘찬 기운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고유가 등 어려
운 환경이지만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후의에 힘입어 나름대
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
한 단양만들기”에 주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무자년은 우리 조상들이 풍요와 희망의 기회로
믿고 있는 쥐띠 해인 만큼 쥐띠인 제가 쥐의 부지런함
을 몸소 실천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은 진보 개혁의 “참여정부”가 실용노선을 주창해 온
“이명박 정부”로 그 자리를 내어 줌으로써 기본적인
정책노선의 변화가 불가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환경은 20km로 변화하는데, 이를 운영하는 자치
단체나 제도가 10km로 움직인다면 지방자치는 침체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5대 단양군의회 실질적인
2년째를 맞이하는 무자년에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의
힘으로 승화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는데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를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으로 미래 우리의 아
들, 딸들이 좀더 나은 생활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작
지만 열과 성을 가지고 의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늘 군민 여러분의 욕구에 차
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정말 진실 된 마음으로 군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민 화합과 역량결집으로 지역발전 도모..



신태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2007년 정해년 지역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의정활동
을 펼쳤습니다.

돌이켜 보면 미흡하고 부족
한 점도 많은 아쉬운 한해이기
도 했습니다. 부족함과 아쉬움
때문에 새해란 단어가 있는 듯
합니다.

주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에도 주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지역주민과 함께하
는 지방분권시대를 지역대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
고자 합니다. 아직도 지역에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지역간, 단체간, 이웃간 서로의
이기적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해소되
지 않은 점이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민 의견
이 분열되고 주민이 이원화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지역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주민이 통합되고 화합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야
말로 우리지역 발전과 투명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고 소외된 계층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이 행정과
의회를 믿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주민 화합의 역
량을 결집시키는데 혼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자율적 의지로 지방자치를 주민과 의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기와 세가 한
곳으로 운집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
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과 함께 책임지
는 의정활동과 모든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표자 역할
로 주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올 한해도 잘못하는 일에는 기탄없는
질책을, 잘하는 일에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시길 당부
드리며, 모두 행복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
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의정활동

凡先處戰地而待敵者佚(범선처전지이 대적자일)



윤수경 의원

단양군민의 의식도 성숙하였고 의회도 성숙하였다.

4기에 걸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가 이기주의, 지역구 쟁기기의 산실이라 하여 5기부터 무보수 명예직에서 전문성과 유능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선거

구제에 유급제를 시행하다보니 초기라서 말썽도 많았고 소선거구제 때보다 자연적으로 지역주민과 접하는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를 탓할 때가 아니고 시대의 흐름과 주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孫子兵法 허실편에는 凡先處戰地而待敵者佚(범선처전지이 대적자일) “모든 것을 대비하고

적을 기다리는 자는 편안하다”고 했다.

의회는 주민의 욕구를 집행부의 검토, 동의, 심사, 승인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보완할 점도 많이 있다. 집행부는 30년 가까운 전문가들의 상호 정보와 의견을 수시로 교환한다는 강점이 있으나 의회는 소집하자마자 전문가와 부딪히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전문위원이 보좌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도에는 집행부의 담당업무 전문가에 앞서는 노력과 연구개발, 알찬 의정 연찬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과거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제도에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이 우리에게 준 막중한 임무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군민을 가족처럼 섬기며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구현



김영주 의원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군민이 바라는 기대를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의견 수렴과 현장 위주의 확인, 점검을 통하여 그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소외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군정과

비교하여 가면서 그동안 추진되지 못하였던 사업들을 현실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부문에는 타 사업에 비하여 부족한 점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군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알찬 의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군민을 가족처럼 섬기며 군민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고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을 위한 의정활동 추진



양수자 의원

이제 우리 모두는 희망에 찬 새해를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런 뜻 깊은 시간에 지난 일년 동안 의정활동을 지켜보아주신 단양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는 늘 건강하시고 기쁨과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십시오.

저는 지난 한해 의정활동의 목표를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삶의 양보다 질을 위해 친환경 농업의 이해와 자연환경을 회생시키는 일에 보다 관심과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8년에도 저는 농촌에서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농촌에서 꿈과 희망을 찾겠으며 환경을 회복시키는

일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거창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아름다운 단양, 깨끗한 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로 인한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살기좋은 단양을 위해 친환경농업과 생활운동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EM-유용한 미생물을 생활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한 작은 일에 감사패까지 주신 주민 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고 올 한해도 모든 일에 가장 먼저 군민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성의 섬세함으로 작은 부분에도 큰 힘을 보태고, 행복을 함께 나누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 정 활 동



2007년 특별위원회 활동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총5회에 걸친 특위 운영으로 총 58건의 조례를 심사, 의결하였다.

심사 의결된 사항을 살펴보면 총 58건 중 4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6건은 수정가결, 1건은 유보하였다.

2007년 조례안심사특위에 상정되었던 주요 조례안으로는 의원발의로 상정된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5,000원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제16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단양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580여세대 870여명이 혜택을 보는 등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제167회 정례회에 단양군수가 제출하여 상정된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



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 및 수정의결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4회에 걸쳐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2008년도 단양군 예산에 대한 승인과 2007년도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 그리고 2006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위원 모두는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절약과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단양군 전체의 발전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질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주민의 공공이익은 물론 복리증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제171회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단양군의 예산을 일반 및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하여 2007년 당초예산 대비 58억 2,053만 7천원이 증가한 1,886억 1,753만 7천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요구된 총 예산액 중 어려운 지방재정규모를 감안하여 경상경비 예산 중 부서운영 기준 여비에 대하여 일정비율(30%)을 정하여 삭감하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하여 군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시기,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이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 113건 40억 5,473만 2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2007년 특별위원회 활동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는 총2회에 걸쳐 운영하였다. 제169회 임시회에서는 22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그 중 52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8.5%인 19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사업을 용역설계에 의존하고 있어 현지실정을 잘 모르는 타 지역의 용역업체가 참가하다보니 현실과 잘 맞지 않는 설계가 나타나는 것은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 하였다.

또한 이미 발주된 사업장도 공정이 50%미만인 사업장이 47개소(20%)나 되어 연말까지 완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공사시공에 있어서도 공기가 지연되는 등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장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고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을 보완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단양하수관거 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던 사업으로 가정별 관로의 시공가능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이 원하는 바와 같이 가정별 관로의 시공가능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사업목적과 효과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시공 가능한 관로는 전면 재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특위구성 목적에 부합되는 성실한 특위활동을 펼쳤으며, 특위 활동결과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집행부에 점검 결과를 이송, 조치토록 하였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는 2차에 걸쳐 14건을 심사하였다. 공유재산특위는 재산취득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항, 취득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의 지장 초래여부, 공원·체육시설·어린이 놀이터, 체육단련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재점검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제171회 정례회 특위 기간 중 위원들은 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학교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및 신축계획은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학교 건립 후 운영계획 수립 시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학점 취득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타 지역의 건축학교와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관광종합타운 신축은 관광, 교육, 경제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종합 검토하여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건물 신축 시, 63빌딩, 경주엑스포타워, 속초엑스포타워, 구리타워, 서울중앙우체국 청사(마징가 Z빌딩)등과 같이 특색 있고 아름다운 관광 단양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2007년도 주요안건 처리현황

▼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월 5,000원미만 소액납부자) 군민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층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로서 단양군 지역 가입자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함
-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단양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대상자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함

▼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단양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정
-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함
-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함

▼ 시멘트 공장 소성로폐기물 사용에 따른 개선대책 촉구 건의

- 2007년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 시 제기된 시멘트 유해성과 관련하여 시멘트 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에 따른 개선대책을 촉구
-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 사용하는 보조연료 중 지정폐기물의 반입 및 사용 금지, 지정폐기물 보관, 운송과정에서의 관리, 지도감독 및 권한을 시멘트 공장이 소재한 해당 시·군·구로 위임
-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배출 허용기준으로 규제기준 강화 및 규제항목을 추가(CO, HCl, Hg, 다이옥신 등)
- 건강영향조사, 환경오염조사,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 3개소의 시멘트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단양군 매포읍 지역을 반드시 포함
-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국가정책의 공조 차원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칭 「시멘트 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에 따른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한 기간 내에 제정토록 건의

▼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시안에서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낙후지역에 포함되었으나 단양군은 충주, 제천, 청원, 증평, 진천과 함께 정체지역에 포함되어 이에 지역분류를 재검토를 요구
-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우리 단양군을 국가지원이 시급한 낙후지역이 아니라 한단계 상향된 정체지역으로 분류하여 국가지원을 줄이겠다는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편협되고 산술적인 지표선정 자료에 의한 결정으로 분류 지표를 단순한 외형적인 기준에서 지역적 현실을 직시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한 분류 요구



오영탁 부의장

상진 구 군부대 이전지 개발을 위한 추진계획은?

Q 상진리에 위치해 있는 구 군부대 이전지는 단양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 뚜렷한 활용 가치가 없는 공간으로 남아 있어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구 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취임 후 바로 드라마 세트장, 세계 전통음식 센터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상진 구 군부대 이전지 개발은 관광기반 시설확충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의식이 팽배해 지고 있는 상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개발방향과 의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A 상진 구 군부대 부지는 상진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공약사업으로 드라마세트장 또는 세계 전통음식 센터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하였으나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투자에 난색을 표시하고 토지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민자사업 불가시 군자체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군 재정형편으로는 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많이 고민하고 있음. 상진리 구 군부대 부지는 단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발 잔여 부지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다 특색있고 전국에서 단양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 시설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를 위해 토지소유주와 토지 매수 및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김동성 군수)



장영갑 의원

상수도사업소 위탁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은?

Q 우리군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물산업 육성방안”을 다른 자치단체 보다 앞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은 단양군민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젖줄로서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등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에도 실질적인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소홀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업무위탁을 추진하는 사유와 업무 위탁이 가져오는 장·단점,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어떠한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A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업무를 위탁하여 운영중인 지자체는 10개소이며 40개 지자체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을 추진 중에 있음. 정부에서는 수도 요금 현실화와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하는 물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방침으로 현재 미 추진 지자체도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임.

상수도 업무를 위탁할 경우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엄격한 수질검사로 (검사항목 55개 → 250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상수도 위탁에 대한 주민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5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위탁사항을 홍보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시협약에 반영할 것임.

(김동성 군수)



김영주 의원

마늘가공공장 건립과 관련 대체 지원방안은?

Q 단양 마늘가공공장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취임식 시 마늘 가공공장을 어상천면에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농림과에서 이미 매포읍 우덕리에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함에 따라 기 선정된 곳을 번복하기 곤란하여 그대로 하셨다면 어상천면에도 무엇인가는 마늘가공공장에 대체할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약사업 목록에서 조차 제외하고 포기한 것은 지역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A 단양마늘가공유통센터 건립대상지는 2005년도 매포읍 우덕리에서 현재 매포읍 평동리로 이전하여 완공단계에 있으며, 2008년에는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마늘수매, 선별, 포장, 판매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임. 어상천면 지역은 우리군 지역중 농산물의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가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어상천면 지역은 수박, 양파, 야생들국화를 이용한 가공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1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내년에는 기반조성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사업으로 야생들국화 5ha(1만5천평)를 재배하여 가공시설의 원료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며, 이후 지역농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김희수 농림과장)



신태의 의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은?

Q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단양읍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단양읍 뿐 만아니라 넓게는 8개 읍·면이 다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300억 넘는 예산에 관광분야까지의 예산은 단양읍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있으며, 교육지원 보조금마저도 단양읍에 편성하여 소외된 읍·면에 대한 균형발전 계획은?

A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각각의 지역들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가 생활공간의 질을 재창조시키려는 행정자치부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전국 30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마을단위 및 주거단위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에듀빌리지 만들기 사업명으로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나 사업대상 구역이 마을 단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충북도의 역점시책사업으로 도내 낙후시군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을 균등 배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분야를 선정하여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승인받아 5년간 174억 2천5백만원이 투자 됨. 사업비중 단양읍에는 문화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에 84억원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군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일부 국도비 사업비가 단양읍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의 특성상 지역별 균등 배분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정부 및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음.

(표순우 경제활력추진단장)



윤수경 의원

한석소수력 발전소 철거진행 상황은?

Q 한석소수력 발전소 민원과 관련하여 공문만 몇 번 발송하고 집단민원 처리 결과는 완결로 처리가 되었음. 집단민원이 완결처리 되었으면 댐이 철거되던가 아니면 지역주민과 유대협력 관계가 나타나야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영춘면의 수해 피해가 중증دم 역류로 그런 것이지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A 하천공작물설치 및 유수사용허가(하천점용허가) 조건 등에 근거해 6차례에 걸쳐 민원을 해결토록 문서로 촉구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영월군의 소수력댐 대처 및 소송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또한 한석 소수력발전(주)를 방문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한석 측에서도 지역주민과의 유대개선과 대화를 강화하고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활발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한석측에서 허가조건의 이행과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보상 대책이나 소수력댐으로 인한 수해방지에 관한 자발적인 용역을 시행해 보겠다던가 하는 등의 가시적인 해결성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유수 사용 허가기간이 2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되어 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수력댐 피해 관련 용역을 시행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유수사용 연장허가 기간은 2009년 12월까지로 한석측의 자율적인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고 소수력댐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유수인용 연장허가 종료시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 등 사안에 따른 모든 가능한 조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음. (류한우 부군수)



양수자 의원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계획은?

Q : 단양군의 강점이 토양, 공기, 수질 등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또 하나는 마늘연구소가 존재 한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유용 미생물을 농가에 보급 지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것임. 이에 따라 우리군이 친환경 농업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 또한 높음.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08년에는 친환경농업에 집중투자 하시겠다고 하여 농업인(친환경)들이 기대하고 있음. 친환경 농산물이 시장에 공급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과 견해는?

A 친환경 농업은 WTO/FTA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농업이며, 청정관광 단양에 반드시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기에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함.

2008년도에는 친환경집중육성 500농가 지원과 유기농퇴비와 자재 지원확대 및 우렁이 종패를 지원하여 친환경실천의 기틀을 다지고 친환경 명품화단지 육성 사업과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약 19억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친환경농업에 지원토록 하겠음.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제169회 임시회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의 화학자재의 적정사용, 환경친화적인 농법 실천,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서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실천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청정단양 실현에 앞장설 것임. (김동성 군수)

지역발전의 필수조건은 주민화합과 배려



오영탁 부의장

단양에는 예로부터 울고 왔다가 울고 간다는 말이 전해 내려 오고있다. 첩첩산중인 단양에 부임해 올 때 마음이 아프고 신세를 한탄하며 생활하다 떠날 때는 그동안 쌓은 정, 수려한 자연경관과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며 울고 간다는 것이다. 이렇

듯 맑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산수절경과 훈훈한 인심, 정이 넘치는 미덕의 고장이기도 하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단양은 굴뚝 없는 공장 즉,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청정한 자연자원이 사방에 무수히 잠재되어 있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움트는 우리 단양은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축으로서 역할과 기대를 받고 있는 비전과 희망이 기대되는 약속의 땅, 기회의 땅이다.

이를 위하여 수반되어야 할 경제적, 환경적, 미래지향적 주민 가치관과 의식 외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은 바로 주민 화합과 배려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다.

지방의회가 1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지방화 시대의 폐단과 잦은 선거로 인한 분열과 불신, 소지역주의와 시대상황 변화에서 나타나는 개인 이기주의의 팽배와 만연은 진정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자 주민 결집과 화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니편 내편을 가르고 너와 나를 따지며, 우리와 너희를 구분할 때, 그래서 안 될 때의 사안이 분명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일부의 지도층이나 리더들의 눈치 보기와 이해득실만을 생각하는 모순된 언행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특히나 지역이라는 공동체의 여러 가지 사안들 앞에 우리는 분명 지역 이득과 발전방향을 위해 결론을 도출 할 때는 주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우선적으로 하여 개인의 사리사욕과 작은 손실 정도는 감수하는 성숙된 군민의식을 보여 주어야 하며, 사회 지도층이나 리더들 또한 어떤 문제발생시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로 존경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가령, 축구경기에서 너무 열심히 하려다 퇴장하여 10명, 9명의 선수로 11명을 상대하여 승리를 거두는 경기에서 볼 수 있듯이 화합의 힘이 형성되지 않고 서로 협력하지 않았다면 졸전을 면치 못하고 대패할 것이다. 이처럼 모두가 '나 하나만이라도'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화합한다면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무난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작지만 강한 단양! 살기 좋고 행복한 단양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목표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 격려하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 조성되고 "주민화합"이라는 대명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군민 각자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

군민 모두가 바라고 행복 지수가 높은 단양!

누구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단양!

바로 우리 군민들의 선택과 의식전환에 달린 것이 아닐까요?

환경 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유용한 미생물들의 공생과 같은 것



양수자 의원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미숙하지만 저의 새해 소망을 글로서 담아 보려고 합니다.

꿈과 희망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온통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경제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은 언제까지 갈 것이며,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까지 퍼질 것인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경제 불황 뿐만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으며, 잦은 바다의 해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우리의 삶과 지구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마치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모든 권한을 독점이라도 한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은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 놓고 연구하거나, 개척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마구잡이 개발로 산들의 황폐화, 태안 앞 바다의 기름유출, 공장들의 폐수, 폐기물과 소각로, 농약으로 가득한 먹거리, 산성비, 황사, 토양공기 오염 등 자연파괴현상은 자의든 타의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서양보다 과학기술이 떨어졌던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신비화의 경향은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정복하게 하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도 창조자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였으며,

인간의 교만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과학 기술은 인류를 구원하는데 공헌해야만 한다고 믿어왔으며, 그리고 인류가 건강하게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지혜를 흙과 사람과 나무와 물에서 조화롭게 공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유용한 미생물(EM)만이 갖고 있는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세균과 같은 다양한 미생물 등의 집단은 서로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공생하면서 발효식품을 만들고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애용 되어 전해왔습니다.

생태계를 회복시켜주며,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 이미 깨닫고 실천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실의 농업환경은 과학적인 미명아래 과다한 화학비료, 질보다 양을 추구하였으며 각종 농약 등 제초제를 사용해 온 결과 신체적, 정신적, 생태학적 환경을 파괴한 것 뿐 농촌의 부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WTO, FTA 등의 체제로 인한 무차별한 농산물교역이 오히려 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발상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오직 친환경 농업만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일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 줄 것인가를 고민 해야하고 좀더 덜 먹고 덜 쓰고 덜 편리하더라도 자연환경을 회생시키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 삶의 모습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EM(유용미생물)의 소중함과 서로 공생하며 자연을 관리하며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더 열심히 사용과 홍보하며 꿈과 희망을 나누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향산리 삼층석탑



- 종 목 : 보물 405호 ■ 지정일 : 1964. 9. 3
- 시 대 : 통일신라 ■ 소유지 :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471-1

단양읍 소재지에서 고수대교를 거쳐 북동쪽으로 11km떨어진 가곡면 향산리 남한강변에 있는 탑으로 1935년경 탑 속의 사리를 도둑맞으면서 허물어졌던 탑을 마을 주민들이 다시 세웠다고 한다.

본래 주변이 밭이었으나 수해 이주로 지금은 주택이 들어서 있으며 석탑 주변에 자기 조각과 기와가 널려 있어서 이곳이 절터였음을 알려 주고 있으나, 절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이 탑은 2단의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세운 형태이다. 기단은 여러 장의 길고 큰 돌로 바닥 돌을 놓고 그 위에 쌓은 모습이며, 각 모서리와 각 면의 가운데에 기둥 모양의 조각을 두었다.

탑신부는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한 개의 돌로 되어 있다. 몸돌에도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의 조각을 두었

으며, 특히 1층 몸돌에는 문짝 모양의 조각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수가 층마다 4단 이고, 지붕돌 위에는 2단의 고임돌을 두었다.

추녀 밑은 반듯하고, 지붕돌 윗면의 경사 역시 온화하여 네귀통이의 선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꼭 대기의 머리장식으로는 노반(露盤:머리장식받침)과 복발(覆鉢:엮어놓은 그릇모양의 장식), 양화(仰花: 솟은 연꽃모양의 장식), 보주(寶珠:연꽃봉오리 모양의 장식)가 남아있다.

석탑의 형태가 우수하고 비례도 충실하며, 조각 수법에서도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양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단정한 탑의 조형을 보여 주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통일신라 후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푹푹한 흙내음과 정이 많은 곳입니다.”



단양을 구미코씨

저는 1995년 8월에 단양사람과 결혼을 하고 1996년 3월에 입국해 12년째 여기 단양에 살고 있는 일본사람 사카이 구미코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단양이라는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첫인상은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운명이랄까? 남편과의 만남은 문선명 선생님을 통한 세계평화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즉 통일교회의 국제결혼이었습니다.

얼굴도 성격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동반자로서 사랑하자는 각오와 서로의 가정에 대한 사고방식이 일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신 아주버님과 조카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시골생활, 한국말은 물론 음식, 생활습관도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집살이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서 행복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늘 미안해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도 여기 아름다운 단양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혼 4년 반만에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은 저와 어린 두 아이를 남겨둔 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 슬픔속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또 다른 충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고 간 선물이라까? 제 몸속에는 새 생명이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회상해 보면 어떻게 지내 왔는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정신없이 세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바쁘게 살다보니 어둡고 슬픈 생각에 빠져있지 못해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양에 온지 벌써 12년째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숨결이 느껴지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단양에서 영원히 살고파요”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자식들과 시어머니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단양에 계시는 좋은 분들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양은 타 지역에 비해 저희 같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훌륭한 프로그램을 통한 많은 교육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의회에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하는 바램입니다. 아름다운 단양,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산, 호수 같은 강, 맑은 공기, 조용한 풍경 등은 친정에 자주 못하는 저를 항상 위로해 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 다니지는 못하지만 항상 나의 곁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고향이기에 저는 단양이 좋습니다. 이제 단양은 엄마의 따스한 품속 같은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단양을 사랑할 것입니다. (글: 사카이 구미코)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의정모니터 허운기

그러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이 물량이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만 수혜자가 너무 적다는 불만을 토로 하였다. 안그래도 최근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 주택을 개량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FTA 등에 따른 농촌지원사업에 농촌주택 수리 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보조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원하는 모든 농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농촌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박이라는 작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병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농약 병은 수거를 하고 있지만 봉투에 들어있는 농약은 사용하고 난 후 별도로 수거를 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므로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어상천을 비롯한 단양군에는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데 유아 전용 도서관이나 아이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농촌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아이를 가진 젊은 세대들이 타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의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의정 펼쳐시길..



의정모니터 김동진

선거 때 신세진 몇몇 사람의 부탁이나 들어주는 사사로운 사안 보다는 지역의 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희망을 주고 지역주민을 단결시키고 지역의 소득기반 사업과 주민의 공동 이익 또는 편익에 힘쓰는 의원이 되기를 대다수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꼭 숙원사업을 완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안되면 와서 안된다고 이유라도 알고 싶은 것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이다. 또 어떤 주민들은 의원들에게 너무 과분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장, 계장, 담당

자가 모두 안된다고 한 것을 종종 의원들에게 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때 거절하는 의원, 요구하는 주민, 검토해 보겠다는 의원, 앞으로는 의회에서 군정에 반영해 달라는 형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단양군에서 봉급을 타 먹고 사는 6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7명의 의원이 견제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의정의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의원을 지역 몇몇 사람들의 모임에서 비위나 맞추고 행사장에 얼굴 내밀고 애·경사를 찾아다니며 술자리에 동석을 요구하여 의원 본연의 임무를 흠집내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제해야 한다. 무보수 명예직 소선거구에서 유급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600여명의 공무원을 감시할 수 있는 의원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의원들도 이에 편중하지 말고 공정하고 정직한 의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빛과 그늘의 조화, 그리고 책임



의정모니터 이 동 주

항상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불변의 이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 것이다. 빛과 그늘은 시간에 따라 그 양상이 틀려진다. 항상 한쪽은 빛이 들고 항상 한쪽에는 그림자만 진다면 그리고 항상 얻는 사람은 얻고 잃는 사람은 잃는다면 그늘과 잃는자는 희망이 있을 수 없다.

특히 매포에 대한 지금의 군정이 그런 것 같다. 빛과 그림자가 조화롭고 얻는 자와 잃는 자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을 위하여 그늘을 강요하고 얻는 자를 위하여 잃는 자를 억압하는 형국이다.

올해는 모조록 형평과 분배의 조화라는 기본적인 틀을 염두에 둘 때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이 소외라는 자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은 지역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이 선행되어 투자되어야 한다. 자칫 주변 환경과 문화에 대한 과도한 평가는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할 수도 있다. 벤치마킹에 대한 폐해도 적잖다. 우리 지역에 대한 창조적 가치판단과 사업이 중요한 때다. 과연 우리 환경과 문화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가? 그것에 대하여 냉철히 판단하고 군정에 반영할 때이다. 여태껏 군정은 업적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 미흡한 감이 있다. 궁극적으로 그 사업의 효과와 이익 창출이 그 사업의 끝이다.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군정실명제를 부탁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 그 방만함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식이다. 의회는 우리가 선출한 군민의 대변인이다. 의회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군민들은 군정과 의정에 대한 기본 지식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역시 우리 군을 발전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민 개개인의 관심이다. 개인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여야 위의 모든 일들을 개선할 수 있다.

소통이 원활한 사회



의정모니터 이 기 항

지난 번 금강산 육로관광이 막 열린 때였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서둘러 여행을 떠났다.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심 긴장하며 산행을 시작했다.

동행을 하던 북측 안내원이 무거운 분위기를 눈치 챌 듯 말을 건넸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특별 교육을 받았냐는 그의 질문에 나의 대답은 인터넷 설명으로 바뀌었다.

북측 안내원이 경험하지 못한 인터넷문화는 커다란 호기심이 되었나보다. 결국 짧지 않은 시간을 그와 동행 해야만 했다. 정보 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겠구나 여행을 마친 뒤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었다.

커뮤니케이션. 요즘 들어 부쩍 많이 쓰게 되는 단어다. 다양한 정보 채널과 시스템 덕분에 양방향으로 소통이 되고 그로인해 눈부신 발전과 변화가 얻어지는 게 지금의 시대다.

지방화시대의 주역인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까 돌아본다. 결론은 역시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와 함께 얻어지는 아이디어가 행정으로 실시간 전달되어야함은 물론이다. 또한 그렇게 얻어지고 설계된 계획은 알차고 짜임새있게 실행될 때 진정으로 발전되고 성숙한 사회가 열릴 것이다.

주민과 행정, 양방향으로의 소통이 원활한 사회, 그 사회의 지렛대 역할에 충실한 지방의회의 활약에 그래서 기대와 박수를 함께 보낸다.

충실하고 열정을 더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군민의 대변자로 주민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왕성한 활동과 변혁과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에 감채를 보냅니다.

의정모니터 활성화, 현장특위 활동, 환경문제, 민의를 듣는다 등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장수노인 수당 지급,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많은 의원 발의와 의원 개개인이 민의 현장을 직접 찾는 활동은 신선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의원! 잘해도 본전”이라고. 엄청난 댓가를 받는 명예직인양 일부의 인식 부족에서 나타나는 얘기도 감수하여야 하며, 뭐한다고 라는 비아냥과 개인 사생활이며 비판 일색의 과소 평가를 감내해야 하는 건 그만큼 주민이 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반증도 되겠죠. 몇 가지만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의원의 정당소속과 광역화에 따른 문제점은 정치적 사안이기에 논하지 않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에도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당 활동도 도외시 할 수 없는 실정이겠지만 이로 인한 의정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는지 또한 광역화에 따른 소지역주의가 증대되는 현실을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의원이 있는 지역은 그나마 불멘소리가 작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지역주민의 불멘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주민화합을 이끌 책임 또한 의원의 역할이며,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충실함을 눈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년 숙원이었던 소규모댐 건설 문제의 접근에도 다소 미온적이지 않았나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단체는 역경 속에도 강력한 이전을 요구할 때 다수 동요되는 민심을 결집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민 바램이라는 기대와 강력한 요구만으로 관철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이겠지만 과연 장밋빛일까요? 라는 의구심에 초조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군민에게 의회는 무엇을 보여 주었는지요?

환경문제, 언젠간 당연히 거론될 중차대한 사안이 있음엔 틀림없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것도 깨달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과 손실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접근에 신중을 더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 나름 것 최대한 노력하고 주민과 지역의 입장에서 활동한 부분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환경특위 초 많은 혼란과 혼돈을 초래하는 빌미 제공과 지금껏 신선한 찬사를 동의 받지 못함은 충실함 부족에서 온 열정만이 앞선 결과로 봅니다. 지금껏 언론매체를 떠나지 않은 의정비 관련 부분입니다.

일을 하면 댓가를 받는 것 인지상정이지요. 활동 영역과 역할에 따른 직책에 걸 맞는 보수는 어느 분야든 존재하는 것, 주민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관계규정에 맞춰 결정되었고, 그 정도는 인정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회의 막중한 권리와 의원의 책무 수행에 합리적 사고와 주민 참살이를 위하여 사심을 타파하며 충실함에 열정을 더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 일부의 비난과 비평은 없어질 거라 봅니다. 언젠가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내용 중 단양군의회 의원은 너무 개인플레이가 심하다는 요지의 글을 보았습니다. 생각과 성향이 다르며 또한 이념이 다른 정당 소속이기에 다소의 견해나 가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립과 반목 또한 질서로 비춰지는 언동들은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의정 중 갑론을박과 솔직 담백한 토론과 활동들은 건전한 발전 방향을 이끌고 도출된 사안에는 혼연일체가 되어 운영되는 모습은 진정한 민주회의이며, 개인적이니 각개플레이니 하는 이류적 얘기는 없을 거라 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 행복지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선진 의회상 구현에 주력하며 존중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의회 운영과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의원이 되는데 매사에 충실하고 열정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혁호 : 바르게살기단양군협의회장)

‘열린 토론과 타협’의 중심이 돼야



정치제도로써 민주주의는 아름답다. 지방자치는 그 꽃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에는 비용이 따른다. 그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할 비용은 인기주의와 선심성 행정에 따른 정책 혼선과 낭비다.

중앙정부는 두 차례 민주화 정권에서 10년간의 성장 후퇴라는 값비싼 비용을 치렀고, 그 결과는 정권교체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는 민선 3기를 거치면서 아직 그 비용에 관해 뚜렷한 인식과 관심이 없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전국 234개 시군구 별로 문제점이 쪼개지고 희석되어 묻혀 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정치예술로 승화시키려면 국민과 주민의 대표 기구로서 여의도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불행히도 그동안 국회는 단상 난투극과 같은 극한적 정쟁에 몰두하며 이 소임을 저버렸다. 최소한 현재까지 지방의회는 그보다는 훨씬 건전한 모습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민 평가는 여의도 국회보다 크게 나올 게 없다. 왜 그럴까?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에서 흔히 제시되는 일반적 진단은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소명-윤리의식 박약, 그리고 주민 관심 및 참여 부족이다.

이러한 개혁 논의는 ‘현문-우답’, 즉 올바른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끌어내는 어리석음의 전형이다. 왜냐하면 말로는 “민주적 선거”라고 하지만 으레 이전투구로 바뀌는 험악한 과정을 통해 능력과 의식이 뛰어난 인물들을 등장시키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의 극치이기 때문이다.

국정개혁과 지방혁신을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논리, 즉 질문은 잘못되어도 올바른 대답을 찾아내고 문제를 풀어가는 ‘우문-현답’의 의정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여의도 국회와 지방의회는 일상적인 대립과 갈등의 논리를 뛰어 넘어 우리사회의 온갖 문제점이 의정 단상에 올려지고 걸려져서 미래지향의 발전적 지혜로 결집되는 열린 토론과 타협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권화섭 : 단양야간학교 교사)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소



우연한 기회에 의회소식지에 올릴 글을 쓰게 되어 군의회와 군의 존재이유에 대한 원론적인 물음을 던져보았다. 답은 ‘군민을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군민을 위해서’라는 말에는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말은 결국 군의회와 군이 하는 일이 어디로 귀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수레가 있다. 우리군이 현재 처해있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보면, 군의회와 군은 이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하루하루 어려워지고 있는 여건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야하는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소. 누구나 지역이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들을 하나하나 바꾸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 마리의 소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군의회와 군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서로 협력과 화합하지 못하며,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수레는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은 우리 주변의 여건들이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는 2008년. 지역에 산재한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 처음으로 돌아가 군의회와 군의 관계를 한번쯤 다시 돌아보고 가야할 일이 아닐까 여겨진다.

(김영식 : 공무원)

의정활동 현장 스케치

제11차 충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

제11차 충북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가 각 시·군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10월 29일 단양군청 2층상황실에서 개최되었다.



◀ 중부내륙 중심권 의정협력회

중부내륙에 위치한 6개 시군(충북 단양군, 제천시,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경북 영주시, 봉화군) 의회 의장단이 참석하는 중부내륙 중심권 의정협력회가 2007년 11월 23일 단양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되었다.

전·현직 의원과의 간담회 ▶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를 2007년 2월 1일 의장실에서 발족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전직 의원들의 경험을 의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의정활동 현장 스케치



◀ 행정사무감사

2007년 행정사무감사가 제167회 정례회에서 실시되었다.
126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3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이송하여 처리하였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

2006년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2007년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윤수경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결산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불만사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다.

의정활동 현장 스케치

▶ 단산중학교 학생 의회 방문

단산중학교 학생과 인솔교사 등 총 15명이 2007년 8월 17일 단양군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의 기능에 대한 인솔교사의 설명과 함께 의회 청사 시설을 견학하였다.



◀ 단양초등학교 학생 의회 방문

단양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솔교사등 80여명이 2007년 10월 8일 제16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회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한 현장학습을 실시하였다.

▶ 바르게살기 회원들과의 간담회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진정 군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해결 방안을 위해 『민의를 듣는다』 시책을 추진하였다.



의정활동 현장 스케치



◀ 군정질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른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제166회 임시회 및 제171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주)에코서비스코리아 현지견학 ▶

2007년 3월 7일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선진 폐기물소각시설 업체인 에코서비스코리아를 방문하여 폐기물 소각실태 및 문제점 등에 따른 설명을 듣고 폐기물 소각 및 처리시설을 견학 하였다.



◀ 전남 나주시 농산물가공 물류센터 견학

2007년 9월 14일 농산물연합마케팅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나주시에 위치한 농산물가공 물류센터를 견학하였다.

의정활동 현장 스케치

의원 및 직원 연수 ▶

의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고자 2007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 상반기 의원 및 직원연수를 실시하였다.



◀ 의원 연수

2007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자치행정 연수원에 위탁하여 의원연수를 실시하였다.

해외연수 보고회 ▶

2007년 9월 3일 단양군청 2층 상황실에서 의정 모니터, 전직의원,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최초로 2007년 실시한 해외연수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도 의회 운영계획

월 별	구 분	주 요 행 사
1 - 2월	임 시 회	•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안심사 등 기타부의 안건
3월	연 수 활 동	• 의원연수(의정활동 실무)
4월	임 시 회	•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기타 부의안건
5월	임 시 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결산검사위원 선임 • 기타 부의안건
	교 류 행 사	• 국제 자매결연 의회 내한 교류 (중국 길림성 안도현 인민대표위원회)
6월	제1차 정례회 (6. 17일 개의)	• 행정사무감사 실시 • 2007년 결산검사 및 예비비 승인 • 기타 부의안건
7월	임 시 회	• 하반기 의장단 선거 •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9월	임 시 회	•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 등 부의안건
10월	임 시 회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실시 • 기타 부의안건
11월	임 시 회	•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11 - 12월	제2차 정례회 (11. 28일 개의)	• 군정질문 • 2009년도 당초예산안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8년도 정리추경안 • 기타 부의안건



www.dycc.net

군민 여러분을 위해

단양군의회는 문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단양군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소식, 회의록 검색, 참여마당을 통하여 자료 조회 및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여 좋은 글 남겨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 www.dycc.net



의정활동 소식 (통권 제21호)

| 인 쇄 : 2008년 1월 일
| 발 행 : 2008년 1월 일
| 발행처 : 단양군의회
| 편 집 : 단양군의회사무과
| 주 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번지
| 전 화 : (043) 420-3504
| 팩 스 : (043) 422-9502

〈비매품〉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곳 단양 !

지난 1년 동안 군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정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단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단양군의의회
www.dycc.net